

산행 끝 만나는 30리 해수욕장 ‘금빛 감동’



신안 입자도 대둔산 (320m)

20여 년 전, 수줍은 섬 처녀 같던 입자도(荏子島) 대둔산(大屯山)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신안 현장에 근무하던 친구로부터 “입자도 바닷가 쪽에 대단히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게” 하는 얘길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지도 한 장 들고 달려갔다. 어머니 해수욕장과 은동해수욕장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우람한 바위산이 떡여 버티고 있었다. 오래 묵은 산삼을 발견한 약초꾼의 감동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루트를 개척했고 차츰 사람들에게 숨은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토박이들은 대둔산을 한동산이라 부른다. 바다 조망이 뛰어나고 숲이 울창해 사계절 좋지만, 특히 툼립이 절정인 4월과 5월 초엔 산꾼들의 발길을 참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섬의 1/4이 몰려있는 신안군은 1969년 무안군의 도서 지역만 모아서 새로운 무안군이라는 뜻의 신안군(新安郡) 지명이 탄생했다. 입자도는 신안군에서 자은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예전엔 여섯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육섬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섬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이 해수면 아래 있었다. 지금의 입자도는 150여 년 전 지계에 흠을 쳐서 나르고 돌을 쌓는 대대적인 간척으로 풍요의 섬으로 변모했다. 입자도는 모래언덕 사구(沙丘) 지형으로 “모래 서말은 먹어야 시집간다”는 얘기가 전할 정도다. 모래는 분가루처럼 미세해 갯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산과 들이 온통 모래로 뒤덮인다. 사토(모래흙)와 양토(참흙)의 중간 정도로 입자가 매우 고운 사양토다. 토질 형성 과정이 사막과 흡사하다고 지질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둔산성 석축



대광해수욕장 전경



함박산 정상



염전지대 조망

지계로 쌓은 풍요의 섬...150년 간척 역사 위 바위산 우뚝

거친 자연환경을 옥토로 바꾼 역발상

사막처럼 척박한 입자도는 오히려 모래로 먹고산다. 물 빠짐이 좋아 대파 농사에는 알맞은 조건이다. 한때 전국 대파의 30% 정도를 공급할 정도였으나, 대파 가격은 변동이 너무 커서 잘될 때는 ‘대박’이지만 과잉 공급으로 값이 폭락하면 ‘족박’ 신세를 면치 못하는 구조였다. 입자도가 네덜란드 토질과 비슷하듯 착안해, 소독 대체 작물로 툼립 구근을 심기 시작한 것이 전국 최대 규모의 툼립 축제까지 발전했다. 매년 이맘때면 섬 곳곳은 한국판 네덜란드로 변신한다. 대광해수욕장 주변은 100만 송이 툼립이 형형색색 고운 빛깔로 피어나고 풍차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 온 섬이 관광 인파로 들쭉인다.

입자도 인근 바다의 깨끗한 모래는 어류들의 훌륭한 서식처 구실을 한다. 입자도 북동쪽에 있는 전장포(前場浦)는 한때 전국 최대 규모의 새우젓 집산지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다. 해마다 1000여 톤의 새우를 잡아 전국 백화새우 어회교의 60%를 차지했었다. 또한, 하루리 앞바다의 타리섬은 민어잡이 전진 기지로 유명했다. 지금도 이곳에서 나오는 병어는 맛 좋다고 소문났다. 그래서일까? 신안군 1004개 섬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섬이 바로 입자도다. 니팔꽃 모양의 입자도는 유배지였다. 조선시대의

유배는 사형 다음가는 중벌이었다. 호남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제주 포함) 유배인의 현황은 ‘조선왕조실록’에서 534명이 검출되었는데 18~19 세기에 섬 지역으로 유배인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섬에 수군진들이 설치되어 유배인의 관리가 용이한 이유도 크다. 절도안치(絶島安置)는 무인도나 섬에 가두는 형벌로서 개인에게 시련의 시간이지만 새로운 깨달음이나 학문적 성과를 이룬 경우도 있었다.

조선 문인화의 거장 우봉 조희룡(1789~1866)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다. 시·사·화의 삼절로 불리던 우봉은 1851년 진종(眞宗)의 위패 논쟁 사건으로 추사와 함께 각각 63세에 입자도 유배 생활을 했으며 유배지 3년이 오히려 예술적 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우봉은 흥매화를 유난히 좋아했다. 대둔산 아래 이축암리 적기지에서 그의 대표작인 ‘황산 낭운도’와 매화에 응이 승현하는 모습을 그린 ‘흥매도’ ‘흥백매팔연폭’ 등을 탄생했다. 대광해수욕장 입구에 조희룡 미술관이 있다. 붉게 핀 화려한 채색의 흥매화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발걸음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 미술관 입장료는 무료다.

대둔산 중주 코스는 대둔산~삼각산~함박산~불갑산~병산 등 봉우리 다섯 개를 오르고 내려야 한

다. 200m급의 낮은 산이지만 지표면까지 완전히 내려갔다 오르기를 반복하기에 녹록지는 않다. 다행히 곳곳에 탈출로가 많아서 체력에 맞게 코스를 조절할 수 있다. 높이에 비해 암릉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다. 등산로 주요 지점마다 안내도를 곁들이고 이정표가 설치돼 있고, 길 상태도 양호한 육산이다. 특히하게도 산 이름은 완주 대둔산과 서울 삼각산(북한산), 영광 불갑산 등 지명과 한자 표기가 같다.

정상에 대둔산성 흔적 남아있어

들머리는 은동해수욕장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좋다. 볼거리가 있고 암릉미가 좋아 추천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차 진입이 용이치 않아 대부분 산행들 머리로 원상리에서 시작한다.

대둔산은 산 아래에서 보면 단봉낙타 등처럼 우뚝하다. 원상리 등산로 초입은 마을회관 뒤 담벼락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가면 된다. 정상까지 2.6km 50여 분 지긋한 경사면이다. 정상 직전에 대둔산성의 석축 일부가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대둔산성은 숙종 37년(1711년) 입자진이 설치될 당시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서 아래 전망데크는 입자도의 망루다.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이동하는 배들을 살필 수 있는 위치다. 197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해저 보물선을 인양했던 증도 앞바다가 코앞이다. 용남 바위굴과 어머니 해수욕장, 은동해수욕장 그리고 육섬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선이 눈길을 끈다.

정상에서 남쪽으로 30여m 내려가면 부등재 방향으로 꺾으면서 삼각산 방향으로 길이 이어진다. 한 여름에도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등산로는 크게 위험 구간은 없다. 산허리 능선을 따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사이사이 터지는 바다 풍경에 지루할 새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16번째 큰 섬답게 비옥한 농토와 광활한 염전이 드넓게 펼쳐진다.

‘부등’이라 새겨진 커다란 입석이 정목재다. 포장 도로 옆에 오래된 안내목을 끼고 오르면 함박산(197m)이다. 기와 조각과 석물, 축대 흔적으로 미루어 암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오래전 극심했던 좌우 이념의 광풍이 있었을 때 섬 주민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고 함박산 인근에서 많은 유골이 발견되어 아직도 주민들 간에 아픈 상처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마지막 봉우리인 병산(139m) 정상에 있는 팔각정 너머로 끝이 보이지 않는 30리길(12km) 황금빛 대광해수욕장이 시선을 압도한다. 대광해수욕장의 대광이라는 이름은 해수욕장이 크다는 뜻도 있지만 인근 마을 대기리와 관산리의 앞 끝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글·사진= 김희순 산 전문가

▶**산행 길잡이** 원상리-대둔산-삼각산-정목재-함박산-불갑산-목우치-병산(팔각정)-대광해수욕장(11.7km 5시간 20분)

▶**맛집** 대광해수욕장 앞에 있는 ‘참 좋은 신안횃집’은 만족도 높은 친절 한 횃집이다. 세프 출신 주인장의 정성이 깃든 푸드 데코레이션이 돋보인다. 회 세트 메뉴 4인 14만 원(1인 3만 5000원)이면 20여 가지 이상의 싱싱한 해산물들이 밑반찬으로 나오고 추가로 2~3종류 더 나올 정도로 푸짐하다.



대둔산 정상